

南冥 曹植의 生涯와 文學

慶北大學校 徐 元 燮·李 鴻 鎮

目 次	次
I. 緒 論	4. 詠 物
II. 南冥의 生涯	5. 輓 詩
III. 南冥詩考	6. 無 題
1. 贈 答	7. 其 他
2. 次 韻	IV. 結 論
3. 山 水	

I. 緒 論

南冥 曹植은 退溪, 李滉과 더불어 嶺南 儒學의 兩大支柱(南冥은 嶺右이고, 退溪는 嶺左임)로서 일컬어진다.¹⁾ 그러나 南冥과 退溪는 學風과 處身이 매우 달랐다. 退溪는 山林에 뜻을 두었으면서도 벼슬길에 자주 나아갔던 만큼 저술과 제자가 상당히 많았다. 한편 南冥은 평생동안 山林에 묻혀 實踐躬行을 했기 때문에 저술도 적고 제자도 그리 많지 않았다. 문학적인 면에서도 退溪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수에 이르는 작품을 남겼으나,²⁾ 南冥은 작품이 아주 적다. 현존하는 南冥의 詩작품은 모두 199首이며, 그 밖에 국문학 작품으로 시조 몇 수가 전할 뿐이다.³⁾

이와같이 詩作品이 적은 것은 南冥이 근본적으로 詩에 대하여 별로 힘을 쏟지 않은 탓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항상 作詩를 경계하여 다음과 같이 自述한 바 있다.

「시인이란 마음이 허황하여 크게 배우는 사람들의 병폐가 되기 때문에 짓는 것을 즐기지

1) 宣祖 때 趙所翼이 經筵에서 말하기를 「慶尙一道, 素號多儒, 昔者上道則有李滉在, 以學問相尚, 下道則有曹植在, 以節義相高, 故風俗有可觀」이라고 하였다. 《朝鮮王朝實錄》(影印本) 24卷 p.307, 金忠烈, 《東洋哲學散稿》(1977, 汎學圖書) p.323 註 23)에서 다시 인용함.

2) 退溪의 現存하는 漢詩는 모두 2,013首나 된다. 《退溪詩學》p.182 註) 34 참조(王甦著, 李章佑譯, 退溪學研究院, 1981)

3) 漢詩는 《南冥集》(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981)卷 之一에 수록된 작품수이다. 南冥의 國文學 작품은 李東英〈江右詩研究序說〉에 의하면, 作者에 대한 異說이 있는 6首외에 그의 작품임이 확실한 것은 다음에 인용하는 2首 뿐이라고 한다. 《陶南學報》第4輯 p.102참조(陶南學會, 1981)

- (1) 頭流山 兩端水を 네듯고 이제보니
桃花 쓴 품은 물에 山影초 초 잠겨세라
아희야 武陵이 어디미노 나는 엔가 하노라.
- (2) 三冬에 비웃입고 岩穴에 눈비마자
구름선 벗취도 편적이 업건마는
西山에 히지다후니 눈물겨워 하노라.

않는다고 하였다.」(詩人意致盡曠, 大爲學者之病, 故不喜述作)

라고 하였고, 또

「항상 시를 읊조리는 것은 비단 쓸모없는 것을 즐기면 뜻을 잃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무한히 교만하게 되는 죄를 더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謔詠을 그만둔 지가 근래에 수십년이 된다.」(常以哦詩非但玩物喪志之尤物, 於某每增無限驕傲之罪, 用是廢謔詠, 近出數十載)

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古文은 상당히 뛰어났다. 南冥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을 때는 左傳과 柳宗元을 좋아하였고, 글을 지을 때는 奇高함을 좋아하고 세속의 문체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 차례 시험에 합격하여 명성이 士林에 떨쳤다.」(讀書喜左柳, 文字製作好奇高, 不屑爲世體, 累捷發解, 名震士林)

고 하였고, 글을 지을 때도,

「처음부터 마음을 쓰지 않고 바닷처럼 빠르게 붓을 달리면서도 고치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기발한 표현과 오묘한 뜻은 아무리 宿儒라도 간혹 간파하지 못했다.」(初不紐毫, 而風驅雷迅, 不加點改, 奇辭奧意, 雖宿儒, 或不能看透)

라고 하였고, 南冥은 자신과 退溪를 비교하여 만년에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나는 古文을 배웠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退溪의 글은 본래 古文이지만, 도리어 성취가 높다. 비유한다면, 나는 비단을 짜아 아직匹을 이루지 못한 만큼 세상에 쓰이기는 어렵다. 退溪는 명주를 짜아匹을 이루었으므로 쓰일 만하다.」(行學古文而不能成, 退溪之文, 本是古文, 然却成就, 譬之我織錦而未成匹, 難於世用, 退溪織絹成匹, 而可用也)

그러나 본고는 그의 시작품에 한 경하여 고찰한다. 따라서 南冥의 생애를 간략히 서술하고, 詩作은 (1) 贈答 (2) 次韻 (3) 山水 (4) 詠物 (5) 輓詩 (6) 無題 (7) 其他로 나누어 살펴도록 하겠다.

II. 南冥의生涯⁴⁾

曹植은 1501년(燕山君 17)에 慶尚道 三嘉縣(지금의 陝川郡) 兎洞 外祖父 李菊 집에 서 태어났다. 先生(이하 先生이라고 代稱)의 字는 槿仲 號는 南冥, 또는 山海 또는 方丈老子·方丈山人이라고도 하였다. 先生은 穎悟 夙成하여 말을 하게 되자, 父親 彥亨에게서 《詩經》과 《書經》을 배워 「應口輒成誦」하였다고 한다. 1518년 18세 때에는 부친을 모시고 서울집으로 돌아왔다. 부친이 端川郡守로 있을 때 先生이 따라가서 官衙에 있었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마치고, 방 하나를 깨끗이 청소하고刻苦하여 공부에만 전념하였다. 經傳子史 뿐만이 아니라 天文·地志·醫方·數學·弓馬·行陣·關防·鎮戍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섭렵 연구하여 훗날 크게 쓰일 것을 기억하였고

4) 본장의 서술은 앞에 든 《南冥集》 pp. 167—178 〈年譜〉에 의거했다.

이 때 스스로 文章과 功業으로서 自許하였다.

1519年(己卯)에는 友人과 함께 山寺에서 《周易》을 읽었다. 12月에는 靜庵 趙光祖 先生의 訃音을 들었는데, 이것이 유명한 「己卯上禍」이다. 士禍가 일어나자 賢流들이 賔逐・廢黜된자가 수 백인에 달하였고, 先生의 숙부인 彥卿도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러나 先生은 이듬해 20세가 되어, 특별히 실시한 初試에 나아가 生員・進士科 및 文科에 모두 합격했으나, 이듬해 文科會試에서는 실패하고 말았다. 1522년 南平 曹氏(忠順衛 琇의 딸)를 아내로 맞았다.

1525년(25세)에는 友人과 함께 山寺에서 《性理大全》을 읽었는데, 元代의 학자 許衡(號魯齋)이 「伊尹의 뜻을 뜻으로 하고, 顏子의 학문을 학문으로 하여, 나아가서는 일한 것이 있고, 숨어서는 지키는 바가 있어야 한다. 大丈夫라면 마땅히 이와같이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일한 바가 없고 숨어서 지킨 바가 없다면 뜻한 바나 학문한 것으로 장차 무엇을 하겠는가? (志伊尹之所志, 學顏子之所學, 出則有爲, 處則有守, 大丈夫當如此. 出無所爲, 處無所守, 則所志所學, 將何爲)」라는 대목에 이르러서 비로소 舉業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聖賢의 학문에 뜻을 두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로지 《六經》・《四子》 및 周敦頤・二程子・張載・朱熹의 글에만 밤낮으로 강신을 쏟았으며, 결국 「敬과 義를 아울러 가기면, 아무리 꺼도 다하기 않는다. 왜 짐에 이 두 글자가 있음은 마치 하늘에 레와 달이 있는 것과 같다. 만고에 걸쳐 바뀌지 않은 것이니, 聖賢의 글가기 만가기 알뜰도 그 요결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夾持敬義, 用之不窮, 吾家有此一字, 如大之日月, 亘萬古而不易, 聖賢千言萬語, 其要歸不出於此)」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 아울러 선생은 孔子 및 周敦頤・程顥・朱熹의 畫像을 손수 模寫해서 龕案에 모셔두고 아침마다 瞻禮하였다.

26개 개 부친의 喪을 당하였는데 享年이 58세였다(1469년) 부친은 內외의 높은 관직을 두루 역임하여 滿直으로 이름이 났었다. 생전에 濟州牧使로 임명되었으나 病으로 취임하지 못하였는데, 병을 핑계로 먼 곳을 피한다고 誣告한 자가 있어 그 官爵을 모두 삭탈당하였다. 별세한 후 달이 넘자, 先生이 억울함을 호소하여 判校 이하의 관직이 모두 회복되었다. 체백을 모시고 돌아와 三嘉 갯골(冠洞)의 先塋 아래 안장하였고, 산 밑에 廬幕을 짓고 3年동안 喪服을 입었다.

1528년(28세)에는 參奉 成遇와 함께 頭流山에 遊覽하였는데, 그가 서울로부터 일부러 찾아왔기 때문이었다. 이듬해에는 宜寧에 있는 閼廬山에서 讀書하였는데, 그 곳에는 明鏡臺가 있어서 늘 왕래하며 유람하였다. 이 때에 지은 詩 2首가 전한다.

斧下雲根山北立,	도끼로 바위를 쳐 산이 북으로 섰고,
袖翻天窟鳳南移.	소매로 天窟 뒤덮어 鳳새가 남으로 옮겼네.
泠然我欲經旬返,	가벼운 마음으로 내 열흘 후에나 돌아가고자.
爲報同行自岸歸.	同行에게 알리려고 언덕으로 돌아간다네.

高臺誰使聳浮空, 높은 대를 누가 공중에 솟게 하였는지,
 鰲柱當年折壑中. 鰲柱가 당년에 굴 속에 부러졌네.
 不許穹蒼聊自下, 창공에서 저절로 내려움을 허락치 않고,
 肯教陽谷始能窮. 陽谷을 가르쳐서 비로소 깊게 하였네.
 門嫌俗到雲猶鎖, 문간에는 속인이 올까 싫어하여 구름이 오히려 잠겨 있고,
 岩怕魔猜樹亦籠. 바위는 귀신이 시샘할까 두려워서 나무가 또 가두었구나.
 欲乞上皇堪作主, 上皇에게 빌어서 주인이 되고 싶어도,
 人間不奈妬恩隆. 人間에서 은혜가 많음을 질투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때, 淸香堂 李源에 찾아와서 經傳의 뜻을 묻기도 하였다.

이듬해 (1530)에는 妻家가 있는 金海의 神魚山 밑 炭洞으로 옮겨 살았다. 이 지역은 바다와 가까워서 봉양하기에 편리하였으므로 母夫人을 모시고 와서 寓居하였다. 작은 언덕 하나를 占有하니 가깝고 아늑하여 따로 精舍를 지어 「山海亭」이라고 하고 居室은 「繼明」이라고 했다. 이 해에 成大谷이 서울에서 찾아왔고, 淸香堂 李源·松溪 申季誠·黃江 李希顔 등도함께 모여서 여러 날 강독 토론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이 「德星이 모였다」고 입을 모았다.

1532년 先生은 落鄕한 후에도 그동안 서울집은 그대로 남겨 두었었는데, 세상이 더욱 험해지자 마침내 살림을 거두어 김해로 돌아와 버렸다. 이 때 成大谷이 詩 1首를 보내었다.

冥鴻獨向海南飛, 하늘 기러기 홀로 海南를 향해 나르니,
 正值秋風落木時. 때는 바야흐로 가을 바람에 나뭇잎 지는 시절이구나.
 滿地稻梁難鷺啄, 땅에 가득한 곡식을 닭과 오리가 먹건만,
 碧天雲外自忘機. 푸른 하늘 구름 밖에서 저홀로 機心을 잊었네.

1534年(癸巳: 34세) 가을에 鄉試에 나아가서 둘째로 뽑혔다. 이 해 과거에서는 先生은 右道の 첫째를, 退溪 李滉은 左道の 첫째를 각각 차지하여 一時 盛事라고 하였다. 이듬 해 봄, 會試에서는 실패하였다. 1536年(丙申: 36세)에는 아들 次山이 태어났으며, 가을 鄉試에서는 세째로 뽑혔으나 이듬 해의 會試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母夫人에게 말씀드린 후 마침내 과거 공부를 폐해 버렸다. 棲岩 鄭之麟이 와서 배웠다.

1538年(戊戌: 38세) 獻陵 參奉에 除授되었으나 사임하고 나아가지 않았는데, 그것은 晦齋 李彦迪과 李霖이 천거했던 것이다.

1539年(己亥: 39세) 여름에는, 여러 門生들을 데리고 智異山 神凝寺에서 글을 읽었다. <讀書神凝寺>詩 1首가 있다.

瑤草春山綠滿園, 아름다운 풀 봄 산에 푸르름 가득한데,
 爲憐溪玉坐來遲. 시냇물 사랑스러워 늦도록 앉아 있네.
 生世不能無世累, 이 세상에 살면서 累가 없을 수는 없기에
 水雲還付水雲歸. 물과 구름을 다시 물과 구름에 부쳐 보내네.

1542年(壬寅: 42세)에는 梅村 鄭復顯이 와서 배웠다. 이듬 해에는 晦齋 李先生의 편지에 답장을 보내었다. 다칠 晦齋가 本道の 按察使로 왔다가 글을 보내어 선생을 만나보기를 청했지만, 선생은 答書에서 「어찌 몸을 바치는 擧子(거자)가 있겠습니까? ……저는 相公이 벼슬을 버리고 田里에 돌아 올 날도 오래지 않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角巾으로 安康里 집을 찾아가도 오히려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寧有呈身擧子乎……吾知相公解歸田里之日不久, 當角巾相尋於安康里第, 尚未晚也)」라고 하여 자신의 處士로서의 뜻을 밝혔다.

1544年(甲辰: 44세) 6월, 아들 次山을 잃었다. 先生이 次山の 顯悟함을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하였으나, 불행하게도 夭折하자 매우 애통하게 여겼다.

1545年(乙巳: 45세)에는 源塘 權文任과 立齋 盧欽이 와서 배웠다. 警齋 郭恂과 함께 雲門으로 가서 三足堂 金大有와 道遙堂 朴河湜을 방문하였다. 7월에 仁宗이 昇遐하였고, 10월에는 평소에 交分이 두터웠던 大諫 李霖·參奉 成遇·司諫 郭珣의 訃音을 들었다. 權臣 李芑·尹元衡 등이 桂林君 및 尹任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인데 연루되었던 것이다. 이른바 「乙巳士禍」이다. 11월에는 母夫人의 상사를 당하였으며, 12월 晝帳(晝帷)을 모시고 돌아와 先親 묘소의 동쪽 언덕에 장사하고, 廬幕에 거처하였다.

1547年(丁未: 47세)에 脫喪한 후 兎洞의 舊庄에 거처하였다. 宋圭庵의 訃音을 듣고 크게 애도하였다. 李芑 등이 鳳城君을 모함해 죽이고 乙巳年의 여러 선배에게 죄를 가중하였는데, 圭庵도 화를 면치 못했던 것이다.

1548年(戊申: 48세)에, 典牲署 主簿로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이 해에 「難伏堂」·「雷龍亭」이 落成되었는데, 그것은 와서 배우는 자들이 많아졌으므로 講學하는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1549年(己酉: 49세) 8월 여러 門生들을 데리고 紺岳山에 가서 鋪淵을 구경할 때, 威陽의 朴希茂·朴承元 등 여러 사람도 여러 날 동안 함께 놀았다. 〈裕川〉詩가 있다.

全身四十年前累, 온 몸 40년 더러움을,
千斛清澗洗盡休. 천 섬 맑은 못에 다 씻어 된다.
塵土尙能生五內, 진토가 만약 五臟 안에 있다면,
直令剌腹付歸流. 바로 배를 갈라서 흐름에 부쳐 보낼까.

1550年(庚戌: 50세) 竹閣 李光友와 그 종형 松堂 光坤(淸香堂 源의 아들)이 와서 배웠고, 또 玉洞 文益成도 와서 배웠다.

1551年(辛亥: 51세)에, 宗簿寺 主簿로 제수되었으나 사임하였다. 德溪 吳健이 와서 배웠다. 玉溪 盧禎·介庵 姜翼과 더불어 花林洞에서 놀았는데, 德溪도 隨行하였다.

1552年(壬子: 52세), 副室에 아들 次石이 태어났다.

1553年(癸丑: 53세) 退溪의 편지에 답하였다. 그것은 그 때 退溪가 大司成으로 서 율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어 벼슬길에 나오도록 권고한 데 대한 것이었다.

1554년(甲寅 : 54세)에는 姜翼이 와서 배웠다.

1555년(乙卯 : 55세) 2월에 松巖 朴齊賢 및 그 아우 篁岩 齊仁이 와서 배웠다. 丹城 縣監에 제수되었으나, 疏를 올려 사임하였다. 寧無成 河應圖가 와서 배웠다.

1556년(丙辰 : 56세)에 喚醒齋 河洛과 그 아우 覺齋 沆이 와서 배웠다.

1557년(丁巳 : 57세) 副室에 아들 次磨가 태어났다. 成大谷을 報恩 俗離山으로 찾았다.

1558년(戊午 : 58세) 4월에 頭流山에 유람하였다. 이 달 14일에 晉州 金泓·秀才 李公亮·黃江 李希顔·龜岩 李楨과 함께 泗川 快哉亭에 모였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蟾津江을 거슬러 올라가 雙溪寺에서 묵었다. 佛日庵에 올랐다가 神凝洞에 들어갔는데, 山中에 집여 일을 있었다. 이 때의 記行文이 《頭流錄》이다. 8월에 成悌元(東洲)와 海印寺에서 會晤하였다. 지난 해에 東洲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때가 되었을 때 장다비가 여러 날을 잇달아 내렸다. 가서 보니 東洲는 이미 와서 막 도롱이를 벗고 있었다. 서로 더불어 반갑게 손잡고 여러 날 동안 강독하고 토론하였다. 동주가 올 때, 大谷이 시를 지어 보내왔다.

南向伽倻馬足輕	남쪽으로 가야산 향해 발자욱도 가벼워,
遙期處士此相俎	멀리서 기약한 처사 이제 서로 만나리.
鍾山若問躬耕叟	산신님이 만일 궁경하는 첩자를 묻거든,
爲報年添病轉嬰	나이 들고 병들었다고 일러주게나.

姜翼이 와서 모시었다. 吳竹牖가 山海亭에 와서 배웠다.

1559년(己未 : 59세) 봄에, 大笑軒 趙宗道가 그 장인 新庵 李俊民을 따라 폐백을 가지고 뵈었다. 造紙署 司紙로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사임하고 취임하지 않았다. 5월 李希顔(黃江)의 喪에 가서 참예하였다. 8월, 星州에 가서 金七峰을 방문하였다. 茅村 李潯이 와서 배웠다.

1560년(庚申 : 60세) 副室에 아들 次訂이 태어났다. 日新堂 李天慶이 와서 뵈었다. 松庵 金沔이 와서 배웠다.

1561년(辛酉 : 61세) 晉州 德山の 絲綸洞에 옮겨 살았다. 선생은 일찌기 頭流山の 山水를 사랑하여 여러 번 덕산동에 들어 갔었는데, 이 해에 옮겨온 것이다. 山天齋가 낙성되었다. 《周易》의 剛健하고 독실하여 광채가 날로 새롭다(剛健篤實, 輝光日新)는 뜻을 따온 것이다. 벽 위에는 「敬」·「義」 두 글자를 크게 써 붙이고, 또 座右에는 〈神明舍圖〉를 걸어 놓았다. 藥圃 鄭琢이 와서 배웠다. 7월에는 雲岡 趙璵이 와서 배웠고, 11월에는 桐谷 李晁가 와서 배웠다.

1562년(壬戌 : 62세) 申松溪의 죽음에 가서 장례에도 참여했으며 뒤에 碣文도 지었다.

1563년(癸亥 : 63세) 雪壑 李大期가 와서 배웠다. 1월에 李龜岩(楨)이 찾아왔다. 3

월에 藍溪에 가서 一蠶先生의 祠堂에 배알하고 여러 門生의 강론을 들었다. 葛川 林薰을 여막에 가서 위문하였다. 東岡 金宇顒이 와서 배웠다. 松岩 李魯가 와서 배웠다.

1564년(甲子: 64세) 2월에 聽松의 부음을 들었다. 7월에 吳德溪와 三藏寺에 모였다.

1565년(乙丑: 65세) 《景賢錄補遺》가 이룩되었다. 守愚堂 崔永慶이 폐백을 갖고와서 뵈고 배우기를 청하였다. 鄭梅村·吳德溪·養性 郝希齡과 智谷寺에 모였다. 겨울에 省庵 金孝元이 와서 뵈었다.

1566년(丙寅: 66세) 正月에 盧玉溪 및 여러 문생들과 함께 智谷寺에 모였다. 2월에 龜岩과 함께 斷俗寺에 모였다. 3월에 林葛川(薰)·盧玉溪(禎)·姜介菴(翼)과 함께 安陰 玉山洞에 놀았다. 寒岡 鄭述가 와서 배웠다. 7월에 교지로서 부름이 있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8월에 尚瑞院 判官으로 제수하고 교지로서 부름이 있었다. 10월 초 3일 궐하에 나아가 숙배하고, 思政殿에 入對하였다. 11월에 사임하고 돌아왔다. 月潭 崔滉이 폐백을 갖고 와서 가르침을 받았다.

1567년(丁卯: 67세) 俞大修가 와서 뵈었다. 6월 明宗이 승하하였다. 11월에 교서로서 특별히 불렀으나 소를 올려서 사양했다. 12월에 또 교지로서 부르심이 있었으나 사퇴하는 소장을 올렸다. 鄭寒岡이 와서 뵈었다. 忘憂堂 郭再祐가 와서 배웠는데, 《論語》를 배웠다.

1568(戊辰: 宣祖 元年 68세) 5월에 교지로서 부르심이 있었으나 소를 올려 사퇴하였다. 7월 부인 曹氏가 죽었다. 浮查 成汝信이 와서 뵈었다.

1569(己巳: 69세) 宗親府 典籤으로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사임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1570(庚午: 70세) 두 번의 召命을 모두 사퇴하였다.

1571(辛未: 71세) 正月에 退溪의 부음을 들었다. 지난 해 12월에 退溪가 죽었는데 이제 그 부음을 듣고 몹시 슬퍼하면서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 내 또한 세상에 오래 있지 못할 것이다(斯人之亡, 吾亦不久於世)」라고 하고 《士禮節要》1권을 써서 문인 河應圖·孫天祐·柳宗智 등에게 주고 「내가 죽거든 이대로 상사를 치루어라(吾歿, 以此治喪也)」고 말하였다. 4월에 주상께서 특명으로 본도 監司를 시켜 食物을 내렸으므로 소를 올려 사은하였다. 寒暄堂 金先生(宏弼)의 畫屏에 글을 썼다. 12월에 병을 얻었다.

1572년(壬申: 72세) 정월에 盧玉溪·金東岡·鄭寒岡·河覺齋가 와서 문병했다. 2월에 李竹閣·河寧無成·孫撫松·柳潮溪·李茅村·李陶丘·林藍溪·朴雪峯이 와서 문병하였다. 초 8일 경침에서 考終하였다. 부음을 아뢰니 주상께서 하명하여 通政大夫 司諫院 大司諫을 증직하였다. 4월에 山天齋 뒷 산 壬坐 언덕에 안장하였다.

Ⅲ. 南 冥 詩 考

1. 贈 答

증답시는 贈詩와 答詩로 나눌 수 있다. 贈詩가 작자가 생각나는 특별한 사람이나 특

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붙여보던 시라면 答詩는 다른 사람의 贈詩나 贈物에 대한 답시이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사람과 관계되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먼저 이에 속하는 시들을 통하여 남명의 交友관계나 대인관계의 片鱗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南冥의 증답시는 (1) 詩題上에 증답의 대상이 분명히 나타난 경우와 (2) 막연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남명의 시는 〈答人〉(5絶) 1수가 답시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贈詩에 속한다. 따라서 贈詩만을 가지고 對人관계의 깊이나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다. 詩題에서 확인되는 것에 중점을 두어 논급하고자 한다. 서술의 편의상 그 대상에 따라 다음 4가지로 구분하고, 그 자세한 목차를 든다.

- (1) 尊丈 金大有: 〈寄三足堂〉(5絶), 〈贈三足堂〉(5律).
 成守琛: 〈奉上仲玉丈〉(古風).
 金泰若: 〈奉三山卓爾丈〉(5律).
- (2) 同輩 成 運: 〈寄健叔〉(5絶), 〈寄大谷〉(5律), 〈寄健叔〉(6絶), 〈無名花寄健叔〉〈兼贈太温健叔〉(이상絶), 〈贈別大谷〉, 〈寄大谷〉(이상 7律).
 鄭惟吉: 〈贈鄭判書惟吉〉(5絶)
 崔興霖: 〈贈崔賢佐〉(5律)
 成悌元: 〈贈成東州〉(5律)
 李公亮: 〈送寅叔〉, 〈贈別姊兄寅叔〉(이상 7絶)
 成 遇: 〈贈成仲憲〉2首(7絶), 〈贈成仲憲〉(古風)
 李希顔: 〈寄黃江〉(7絶), 〈贈黃江〉(7律)
 尹 奎: 〈竹淵亭贈尹進士奎〉(7律)
- (3) 後輩 趙 瑗: 〈書劍柄贈趙狀元〉(5絶)
 吳 健: 〈贈吳學錄健上京〉(5絶), 〈贈吳學錄〉(5律)
 李俊民: 〈題古屏寄子修姪〉2首, 〈寄子修姪〉(이상 5絶), 〈寄子修姪〉(5律).
 林億齡: 〈贈石川子〉(古風)
 河天瑞: 〈記夢贈河君並小序〉(5絶)
 李喜生: 〈送李慶胤〉(7絶)
 李 源: 〈贈君浩〉(7絶)
 朴思恭: 〈贈朴君思恭〉(7絶)
 成 近: 〈贈可遠〉(7絶)
 河宗岳: 〈贈河君礪〉(7絶)
 金宇宏: 〈遊黃溪贈金敬夫〉2首(7絶)
- (4) 僧道 敬 溫: 〈別敬溫師〉(5絶)
 熙 鑑: 〈贈熙鑑師〉(7絶)
 五台僧: 〈贈五台僧〉(7絶)
 行脚僧: 〈贈行脚僧〉(5絶)
 惟 政: 〈贈山人惟政〉(5絶)
- (5) 其他 朴 忻: 〈寄叔安〉(5絶), 〈醉贈叔安〉(古風)
 金天宇: 〈贈太容〉(5絶)
 崔明遠: 〈贈崔明遠〉(5絶)
 金 烈: 〈贈金烈〉(5絶)
 柳繼先·魚士拱: 〈寄柳繼先魚士拱明月寺讀書〉(7絶)

張儀仲：〈答贈張都事儀仲〉(7絶)

李增榮：〈贈別李學士增榮〉(7絶)

西舍翁：〈寄西舍翁〉(7絶)

尹大連：〈贈尹大連〉(7絶)

宜春倅：〈贈宜春倅〉(7絶)

〈贈別〉

〈答人〉(이상 5絶)(計：56首)

(1) 尊丈과의 贈答詩

南冥과 존장의 관계에 있던 사람은 金大有·成守琛·金泰若의 3인 뿐이다. 그 중 뒤의 2사람에게 보낸 詩에는 「丈」자가 붙어 있으므로 그 관계가 분명하고, 金大有는 南冥보다 21세 연장인 만큼 존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金大有(1479~1551)는 자가 天佑, 호는 三足堂이다. 《成宗實錄》을 편찬할 때 그의 스승 金宗直(1431~92)이 쓴 《吊義帝文》을 史草에 실음으로써 戊午史禍에서 사형받은 濯纓 金駟孫(1464~98)의 조카이다. 그는 1519년에 己卯士禍가 일어나자 淸道 산속에 들어가 살았다. 南冥은 1545년 郭恂·朴河談과 함께 雲門山の 三足堂을 방문하였고, 이후 여러차례 詩로 和答한 바 있다. 〈寄三足堂〉을 보자.

事與風雲變, 일은 풍운과 함께 변하고,
江同歲月流, 강물은 세월과 더불어 흘러가네.
英雄今古意, 영웅의古今의 뜻을,
都付一虛舟, 모두 한 덩빈 배에 부치네.

이 시는 「三足堂」에 부쳐보낸 것이지만, 동시에 은거생활을 보내는 南冥 자신의 心境의 표백이기도 하다.

成守琛(1493~1564)의 자는 仲玉 호는 聽松, 趙光祖(1482~1519)의 문인으로 己卯士禍가 일어나자 벼슬길을 단념하고, 坡州 牛溪에 은거하였다. 牛溪 成渾(1535~98)이 그의 아들이다. 〈奉和成仲玉丈〉은 〈蝴蝶樓〉詩와 더불어 南冥의 4言詩로서는 드물게 보는 작품이다.

(2) 同輩와의 贈答詩

成運(1497~1579)의 자는 健叔, 호는 大谷이다. 1545년 형(成遇, 字 仲憲)이 乙巳士禍로 화를 입자 報恩 俗離山에 은거하였다. 成運 형제는 모두 南冥과 교분이 매우 두터웠다. 成運과의 증답시는 7首, 成遇와는 3首나 된다는 것으로도 임증이 된다. 1566년(丙寅)南冥이 成運과 함께 明宗의 召命을 받았을 때 지은 〈贈別大谷〉을 보자.

出自北門同渡漢, 북문으로 나와 함께 한강을 건너는데,
三同猶有姓非同, 세 가지는 같지만 姓만은 달랐네.
九臯鶴和曾心願, 九臯에서 학이 화답함은 일찌기 마음 속에서 바라던 바였지만,
千里星分已道窮, 천 리에 별은 흩어져 이미 길이 막혀버렸네.

野水東流歸不返, 들녘 물은 동쪽으로 흘러 돌아오지 않고,
寒雲南下去無從. 邊塞 구름은 남쪽으로 내리가 따를 길이 없네.
丁寧白日相思意, 한낮에丁寧하게 그리는 마음은,
魂夢慙慙他夜通. 꿈속에서라도 은근히 다른 날 밤에 통하겠지.

成悌元(1506~59)의 자는 子敬, 호는 東洲다. 遺逸로 전거되어 報恩縣監을 지냈다. 南冥은 1557년 俗離山으로 成運을 찾았을 때, 마침 현감으로 있던 그를 만났으며, (이 때의 시가 아래에 인용되는 <贈成東洲>임) 이듬해 8월 15일 伽倻山 海印寺에서 만났을 것을 약속, 이행한 적도 있다.

斗縣無公事, 작은 고을에 公事가 없어,
時時入醉鄉. 가끔 술에 흠뻑 취하네.
目牛無金牛, 소를 보아도 온전한 소가 없으니,
焉用割雞傷. 닭잡는데 어찌 큰칼을 쓰리오.

李公亮(1500~?)은 자가 寅叔, 호가 安分堂으로 南冥의 姊夫이다. 南冥은 그와 情誼가 매우 두터워 頭流山에 함께 놀기도 하였고 그를 위해 《永慕堂記》를 지어 주기도 하였다.

李希顔(1504~59)의 자는 愚翁, 호는 黃江으로 金安國의 門人이다. 草溪 출신으로 南冥과의 교분이 매우 두터웠다.

尹奎(1500~?)의 자는 文老, 號는 月塢로, 南冥과 주고 받은 詩가 많은 편이다.

(2) 次韻 참조)

(3) 後輩와의 贈答詩

趙瑗(1544~?)의 자는 伯玉, 호는 雲江, 南冥의 門人으로 조카 李俊民의 사위이기도 하다. <書劍柄贈趙狀元瑗>詩는 1572년 趙瑗이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한 것을 기념하여 지어준 詩인 듯하다.

吳健(1521~74)의 자는 子强, 호는 德溪, 南冥의 高足으로 學行이 으뜸이었다. 金麟厚(1510~60, 河西)·李滉의 門人이기도 하였다.

李俊民(1524~90)의 자는 子修, 호는 新菴, 公亮의 아들로 南冥의 조카이다. 1549년 式年文科에 丙科로 급제하여, 兵曹·吏曹·禮曹의 判書를 역임, 1587년 左參贊에 이르렀다. 당시 東·西分黨의 싸움을 조정하려 나선 李珥(1536~84: 栗谷)의 태도에 敬服, 그의 死後에도 그를 옹호하였다. 詩文이 뛰어났다.

林億齡(1496~1568)의 자는 大樹, 호는 石川, 海南 출신으로 朴祥(1472~1530, 訥齋)의 門人이다. 1545년 乙巳士禍 때 錦山郡守로서 동생 百齡이 尹元衡(?~1565) 일파에 가담하여 尹任(1487~1545)의 많은 선비들을 추방하자, 자책을 느끼고 벼슬을 사퇴하였다. 그 후 百齡이 原從功臣의 錄卷을 보내오자 분격하여 이를 불태우고 海南에 은거하였다. 뒤에 등용되어 1552년 同副承旨·兵曹參知를 역임, 이듬해 강원도 관

칼사를 거쳐 1557년 潭陽府使가 되었다.

李淳生(?)의 자는 景(慶)胤, 進士로서 虛禎(玉溪)과 더불어 南冥을 師事하였다.

李源(1501~?)의 자는 君浩, 호는 清香堂이다.

河宗岳의 자는 君礪, 成均進士로 南冥의 姪婿이다. 불행히도 일찍 죽었다.

金宇宏(1524~90)의 자는 敬夫, 호는 開巖으로 李滉의 門人이기도 하다. 南冥의 外孫婿이며 高足인 金宇顒(1540~1603, 東岡)은 그의 아우이다. <遊黃溪齊金敬夫> 2首를 보자.

(其一)

老夫頭面已霜乾, 늙은이 머리에는 서리가 벌써 말랐는데,
木葉黃時上得山. 나뭇잎 노랗 때 산에 올랐네.
雙柏有枝柯幹好, 두 그루 잣나무에 가지가 아름다우니,
莫言庭除秀芝蘭. 뜰에 芝蘭이 빼어났다고는 말하지 말게.

(其二)

莫恨愁容淡更疏, 가을 모습이 담담하다고 한하지 말라.
一春留意未全除. 한 봄의 남은 기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늘.
天香滿地薰生鼻, 天香이 땅에 가득하여 향기가 코를 찌르는데,
十月黃花錦不如. 10월의 국화는 비단보다 더욱 나은 것을.

(4) 僧道와의 贈答詩

南冥은 山水를 좋아하여 그에 관한 비교적 많은 詩를 남기고 있다. (3. 山水에서 다시 서술함) 身元을 확인하기 어려운 僧侶나 山人과의 贈答詩는 「其他」와 같은 항목으로 다루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儒學者로 일관된 생애를 보낸 南冥과 대상이 속세를 완전히 벗어난 僧侶·山人이란 점에서 독립시킨다. <贈熙鑑師>를 보자.

上方岑寂鏤黃昏, 上方은 호젓하게 황혼이 잠겼는데,
竹影松聲道自存. 대 그림자, 솔 소리에도 道가 제대로 있네.
斷盡機心詩癖在, 機心を 다 끊었으나 詩興은 그래도 남아 있어,
強將佳句叩人門. 굳이 아름다운 詩句를 가지고 남의 매문을 두드리네.

(5) 其他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낸 시들이 이에 속한다. 그 가운데에는 4首의 詩 즉 <贈西舍翁>·<贈宜春倅>·<贈別>·<答人> 이외에는 모두 성씨는 밝혀져 있지만, 자세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다는 뜻에서 같은 부류에 넣을 수 있다.

2. 次 韻

次韻詩는 일명 和韻詩라고도 한다. 다른 사람이 지은 詩의 韻脚과 동일한 押韻을 하는 作詩方法이다. 여기에서 原詩의 작자는 역사적인 인물일 수도 현존 인물일 수도 있다. 따라서 贈答詩의 對象이 생존인물에만 국한되는 것과는 區別된다. 詩를 논하는

경우 별도로 다루는 것이 보통인 것은 그 때문이다.

南冥의 次韻詩는 모두 24首에 달한다. 그 중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작품은 〈次觀水樓韻〉(5絶)·〈次友人韻〉·〈次梁山雙碧樓韻〉(이상 5律) 등 3首 뿐이다. 성씨가 밝혀져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周世鵬: 〈在山海亭次周景遊韻〉(5絶)·〈次周景遊韻題僧軸〉(5律)
2. 成 運: 〈奉和健叔因問金太容〉(5絶)·〈和健叔呈崔賢佐〉·〈和健叔〉(5律)
3. 河麟瑞: 〈和風月軒韻〉(5律)
4. 李 源: 〈和清香堂詩〉(5律)
5. 崔興霖: 〈和上賢佐〉(5律) 2首
6. 尹 奎: 〈竹淵亭次尹進士韻〉(5律) 4首, 〈竹淵亭次尹文老韻〉(7律)
7. 文敬忠: 〈次湖陰題四美亭韻〉(7律) 2首
8. 鄭宗榮: 〈次方伯韻〉(7律)
9. 李文健: 〈次默齋韻〉·〈次休叟韻〉(7律)
10. 徐敬德: 〈次徐花潭韻〉(7律)
11. 宋 相: 〈和寄宋相〉(7絶)

周世鵬(1495~1554)의 자는 景游, 호는 慎齋로 本貫은 尚州이다. 1541년 豐基郡守로 부임하여, 이듬해 白雲洞(順興)에 安珣의 사당(晦軒祠)을 세우고 이어 1543년에는 朱子의 白鹿洞學規를 본받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白雲洞書院(詔修書院)을 세웠다. 〈在山海亭次景游韻〉(5絶)을 든다.

可矣豐基倅, 아름다울 손 豐基의 원님이,
行驂繁我門. 행차 말을 내 집에 매었네.
箇箇談王口, 王道를 날날이 말을 하는데,
於今爲世尊. 지금 세상에서 존경받는다네.

文敬忠(1494~?)의 자는 兼夫, 호는 湖陰으로 南平人이다. 學行이 뛰어났고, 또 武略도 있었다. 鄭光弼의 추천으로 仇寧萬戶가 되었으나, 1519년 己卯土禍가 일어나자, 月如山에 四美亭을 짓고 은거하였다. 〈次湖陰題四美亭韻〉(其二)를 든다.

遼鶴重來歲月遲, 遼鶴이 거듭 오니 세월이 더딘데,
古亭西畔立多時. 옛 정자 서쪽에 오래도록 서있네.
南冥世業兒三月, 南冥의 사업은 석달된 아이이고,
呂尚功名竹一磯. 呂尚의 功名은 한 깃돌 남짓대라네.
芳草幾消遊子恨, 芳草는 나그네의 한을 몇 차례나 씻었는가,
高山長憶季女詞. 高山엔 季女의 노래를 길이 추억하네.
頭流十散黃牛脇, 頭流山 黃牛 옆구리를 열 번 담과했으니,
定是前緣未許歸. 이것은 전생의 연분이라 돌아가지 못하네.

徐敬德(1489~1546)의 자는 可久, 혹은 復齋·花潭이다. 1531년 生員試에 응시·학격했으나 벼슬을 단념하고 開城 東門 밖 花潭에 은거하여 평생을 性理學 연구에 전념

하였다. 〈次徐花潭韻〉(7律)을 든다.

秋江疏雨可垂論,	가을 강, 성긴 비에 낚싯줄 드리울 만하고,
春入山薇亦不貧.	봄기운이 산고사리에 들었으니, 또한 살림이 가난하지 않네.
要把丹心蘇此世,	丹心으로 이 세상을 소생시키려고 하지만,
誰回白日照吾身.	누가 白日을 돌려서 내 몸을 비춰줄 것인가?
臨溪鍊鏡光無垢,	시내에 임하여 거울을 닦으니 빛에 때가 끼지 않고,
臥月吟詩興有神.	달 아래 누워서 詩를 읊조리니 흥에 신이 나네,
待得庭梅開滿樹,	뜰의 매화가 나무에 가득 피기를 기다렸다가,
一枝分寄遠遊人.	한 가지 나누어서, 멀리 간 사람에 부키러하네.

3. 山 水

南冥이 남긴 山水詩는 모두 36首이다. 은거생활로 평생을 보낸 그가 山水를 벗삼아 많은 詩를 남기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頭流山, 閣嶺山(宜寧)·神魚山(金海)·智異山, 雲門山(淸道)·紺岳山·俗離山 등 여러 곳을 혹은 친구와 함께 혹은 제자들과 더불어 유람하고 그 감흥을 詩로 나타내었다. 詩體에 따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5言絶句:

〈織女岩〉·〈題龜岩寺〉·〈題黃江精舍〉·〈題德山亭柱〉·〈遊安陰玉山洞〉·〈詠青鶴洞瀑布〉
〈涵碧樓〉·〈題姜郊多檜淵茅亭窗〉 등 8首.

(2) 5言律詩:

〈書李黃江亭〉 1首.

(3) 7言絶句:

〈題五臺寺〉·〈青鶴洞〉·〈遊安陰玉山洞〉 2首, 〈明鏡臺〉·〈黃溪瀑布〉 2首, 〈鳳鳴樓〉·〈讀書神凝寺〉·〈遊白雲洞〉·〈浴川〉·〈德山卜居〉·〈題黃江精舍〉·〈題聞見寺松亭〉 2首, 〈野翁亭〉·〈頭流作〉 등 17首.

(4) 7言律詩:

〈瀟虛亭〉·〈江樓〉·〈題宋氏林亭〉·〈題鄭思玄客廳〉·〈題房應賢茅亭〉·〈明鏡臺〉·〈題玩龜亭〉 등 7首.

(5) 古風:

〈蝴蝶樓〉(4言)·〈題永陽採蓮堂〉·〈題三足堂〉 등 3首.

다음에 몇 首를 든다.

〈頭流作〉

高懷千尺掛之難, 고상한 심회 千尺이라 걸기 어려워,
方丈于頭上上竿. 方丈山 꼭대기의 맨 위의 장대에나 걸리라.
玉局三生須有籍, 玉局觀에는 三生の 文籍이 있으니,
他年名字也身看. 먼 훗날에 이름을 몸소 보리라.

〈德山卜居〉

春山底處無芳草, 봄 산 어느 곳인들 芳草 없겠는가,

只愛天王近市居， 天王^{조지}가 上帝와 가까움은 오직 사랑하네，
白手歸來何物食， 빈 손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먹을 것일가，
銀河十里喫餘餘， 銀河가 10리이니 먹고도 남노매라，

4. 詠 物

詠物詩는 특정한 對象 그 중에서도 草木을 대상으로 하여 읊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草木 자체의 묘사보다는 작자의 寓意가 두드러진다는 특색이 있다.

南冥의 詠物詩는 모두 17首이다. 詩體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5言絶句：

〈種竹山海亭〉·〈梅下種牡丹〉 2首

(2) 5言律詩：

〈詠獨樹〉 1首

(3) 7言絶句：

〈斷俗寺政堂梅〉·〈庭梨〉·〈菊花〉·〈詠蓮〉 2首，〈詠橘〉·〈清香堂八詠〉 8首(竹風·松月·琴韻·雪梅·霜菊·盆蓮·經傳·碑砌)·〈詠梨〉 등 15首.

吟詠의 대상을 살펴보면, 梅(2首)·菊(2首)·竹(2首)·蓮(3首)·梨(2首) 松·牡丹·橘·琴·獨樹·經傳·碑砌 등 12種이다. 이 가운데 〈詠橘〉은 魚應辰과의 聯句이고, 나머지는 모두 전형적인 詠物詩이다.

먼저 〈清香堂八詠〉(盆蓮)을 살펴보자.

上園休許小桃誇， 上林苑의 복숭아야 뽑내지 마라，
游裏誰知君子花， 진흙 속 君子花를 누가 알겠는가？
留得小盆涵養意， 작은 분에 기르는 뜻 머물러 있어，
暗香將月夜深和， 은은한 향기 달을 도와서 밤에 어울리나니，

〈獨樹〉는 南冥의 自畫像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作品이다.

離群猶是獨， 무리를 떠나 외로이 서서，
風雨自難禁， 비바람을 스스로 금하기 어렵네，
老去無頭頂， 늙어가면서 머리꼭지 없어졌고，
傷來燬腹心， 傷心하다보니 배나 심장이 다 타버렸네，
穉夫朝餽飯， 농부는 아침마다 짝하여 밥을 먹고，
瘦馬午依陰， 야윈 말은 한낮에 그늘에 의지해 있네，
幾死查寧學， 차라리 죽은 등걸을 배울 일이니，
升天只浮沈， 하늘에 올라가면 단지 浮沈할 뿐이네，

5. 輓 詩

輓詩는 죽은 사람을 추념하여 짓는 詩로서 漢詩에서는 특별히 분류하는 것이 상례이다. 南冥의 輓詩는 모두 12首에 달한다. 대상이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은 〈輓詞〉 2

首 5律 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7사략에 대한 것이다.

1. 〈輓朴處侯〉 1首(5律)
2. 〈輓貞夫人崔氏〉 2首(5律・7律各 1首)
3. 〈輓河希瑞龜老〉 2首(5律), 1首(7律)
4. 〈姜參奉輓詞〉 名翼・字仲輔 1首(5律)
5. 〈輓裴生〉 名忠孝・金海人 1首(7絶)
6. 〈輓陳克仁〉 娶居金海 1首(7絶)
7. 〈輓姜進士瑞字叔圭〉 2首(7絶).

姜翼(1523~ ?)의 字는 仲輔 호는 介菴・松菴, 晉陽人으로 南冥의 門人이었다. 1549년 進士가 되고, 1566년(명종 21) 儒生 33인의 疏頭로 상소하여 鄭汝昌을 申寃케 한 후, 학문연마와 후진 양성에 힘쓰다가, 宣祖 初에 吳健의 薦거를 받아 昭格署參奉에 임명되었다.

〈姜參奉輓詞〉

儀禮三千錄, 儀禮의 3,000가지 기록을,
尋求五十年. 찾아서 강구하기 50년이었네.
棘薪看燠重, 가시 숲에 불더미가 겹침을 보았는데,
萱草又霜顛. 흰추리가 또 서리에 너머졌네.
夜盡啼商鳥, 밤새도록 商鳥가 울고,
春深叫杜鵑. 봄이 깊어 두견새도 부르짖네.
上天呼不得, 上天을 불려도 부질없는 짓,
君子果何愆. 그대는 과연 무슨 허물이 있던가.

姜瑞(1510~ ?)의 자는 叔圭, 호는 梅谷으로 慕菴 瑀의 아우이다. 1537년에 進士에 급제하였다. 부친의 喪中에 효도를 다하였다고 해서 1544년 旌閭를 받았다. 〈其一〉을 든다.

中夜叫呼徐節孝, 한밤에 徐節孝(積:宋人)를 부르짖어 부르니,
鬼神聞此亦應悲. 귀신도 이 소리 들으면 슬퍼하리.
欲負米來千里遠, 쌀 지고 천 리 먼 길을 오려고 했는데,
曉風高樹已摧枝. 새벽 바람에 높은 나무, 가지가 이미 꺾어버렸네.

6. 無 題

南冥의 〈無題〉詩는 모두 13首이다. 그 가운데에는 〈缺句〉2首가 들어있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首句임).

5絶(5首):

- 〈無題〉(雨洗山嵐盡)
- 〃 (魯野麟空老)
- 〃 (草龍十三株)

” (霜入楚王宮)

” (服藥永長年)

7絶(6首):

〈無題〉(神武城西水欲泮)

” (平野遙看冠嶽山)

” (强半行藏辦自家)

” (大學篇初十六言)

” (缺句) (秋山何處不黃葉)

” (缺句) (紅葉滿山春有思)

7律(2首)

〈無題〉(斯干日日樂靡違)

” (一絲無補聖明朝)

〈無題〉(魯野麟空老)는 난세에 대하여 恨嘆한 것이다.

魯野麟空老, 魯나라의 들에 麒麟은 부질없이 늙었고,
岐山鳳不儀. 岐山엔 봉황새가 나타나지도 않네.
文章今已矣, 文章이 이제 끊어졌으니,
吾道竟誰依. 우리의 道는 마침내 뒤를 의지하리.

〈無題〉(大學篇初十六言)는 利祿을 쫓아 經書의 암송만 일삼고 實踐躬行을 도외시하는 俗儒에 대한 준엄한 경계이다.

大學篇初十六言, 〈大學〉의 처음 16글자를,
工夫半世未逢源. 반평생 공부했으나 아직도 근원을 찾지 못하는데.
諸生剩得聰明在, 諸生들은 총명이 지나쳐,
經記詩書好吐吞. 詩·書를 암기하여 마구 내뱉는구나.

7. 其 他

「其他」의 詩는 贈答·次韻·山水·詠物·輓詩·無題등 詩를 제외한 것으로서, 모두 39首에 달한다. 자세한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5絶(8首)

〈讓成〉

〈讓興〉

〈山海亭偶吟〉

〈偶吟〉

〈孤舟晚泊〉

〈辭三足堂遺命歲遺之粟〉

〈偶吟〉

〈偶吟〉

(2) 5律(3首):

〈山寺偶吟〉

〈謝僧送圓扇〉

〈書張判官衣〉

(3) 7絶(24首):

〈山中即事〉2首

〈鄭監司見過〉

〈聞李愚翁還鄉〉

〈江亭偶吟〉

〈有感〉

〈春日即事〉

〈謾成〉

〈訪村老〉

〈德山偶吟〉

〈讀項羽傳〉

〈謾成〉

〈山海亭苦雨〉

〈謾成〉

〈喪子〉

〈漫成〉

〈題子修畫屏裏陽城〉

〈鮑石亭〉

〈畫竹〉

〈在盆城聞打麥聲〉

〈在山海亭書大學八條歌後〉

〈川上吟〉

〈地雷吟〉

〈謝李元吉送曆〉

(4) 7律(1首):

〈司馬所宴〉

(5) 7言長編(3首):

〈狐白裘詩〉

〈蘇子卿詩〉

〈六國平來兩鬢霜詩〉

〈漫成〉〈漫興〉〈偶吟〉〈有感〉〈山中即事〉 등과 같은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即興을 읊은 것들이다. 그 가운데에는 가끔 現實에 대한 예리한 洞察도 엿보인다. 〈有感〉(5絶)을 보자.

人之愛正士,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好虎皮相似.	호랑이 가죽을 좋아하는 것과 같네.
生前欲殺之,	살았을 땐 죽이고자 하지만,
死後方稱美.	죽은 후엔 비로소 아름답다고 하네.

V. 結 論

本論에서 논의한 것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1) 南冥의 詩는 모두 199首가 現存한다. 그것은 南冥이 詩作을 그렇게 증시하지 않았던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2) 南冥의 詩를 形式面에서 살펴보면, 7言絶句가 101首(缺句 2首 포함)로 가장 많고, 6言絶句가 1首로 가장 적다. 그 밖에는 5絶 47首, 5律 16首, 7律 24首, 古風 7首 그리고 7言長篇 3首로 되어 있다.

(3) 內容的으로는 「贈答」 56首, 「次韻」 24首, 「山水」 36首, 「詠物」 17首, 「輓詩」 12首, 「無題」 13首, 其他 39首로 분류할 수 있다.

(4) 그는 평생동안 山林處士로서 생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俗世와 絶緣되어 있지 않았음을 그의 詩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것은 그가 儒家의 本質的인 측면 즉 實踐躬行의 理想을 몸소 체득·실천한 人物이라는 것을 立證하는 것이다.